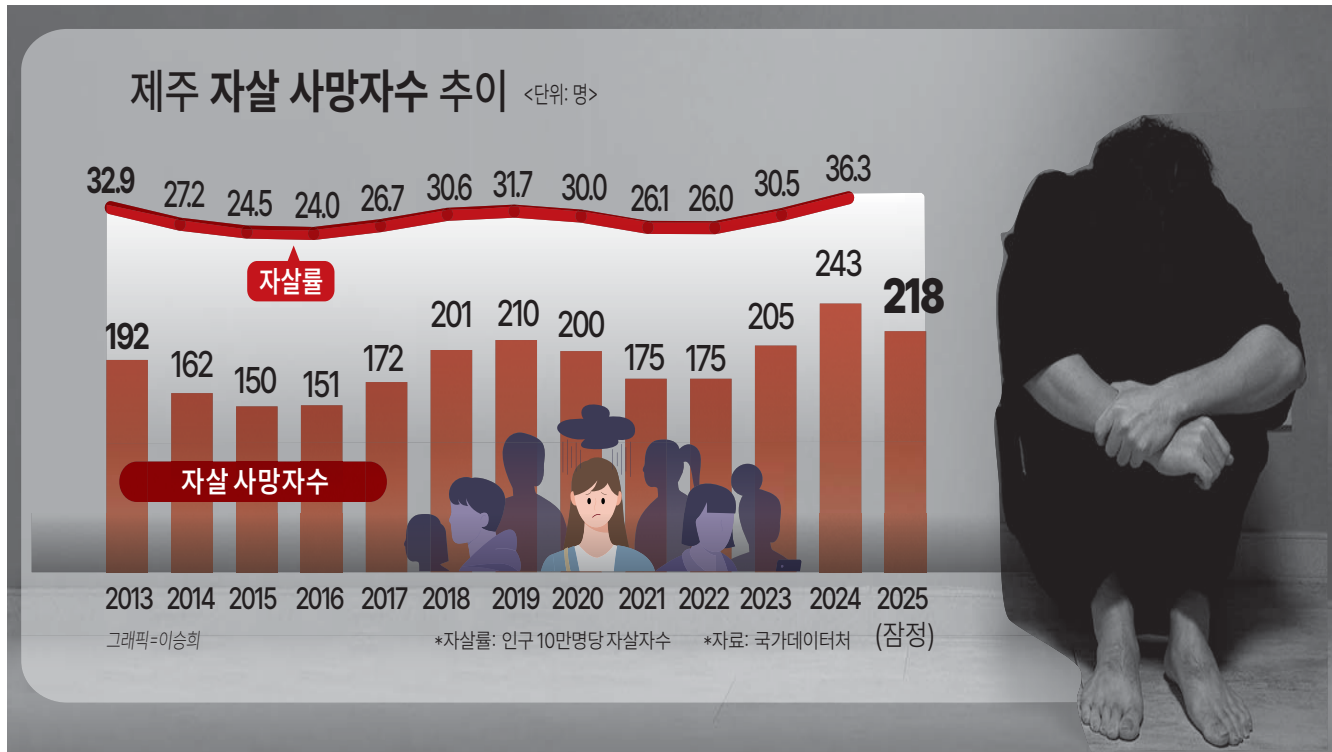


제주, 생명존중도시로 나아간다 (1)통계에 드러난 경고

제주가 마주한 ‘아픈 지표’… 짙어진 위험신호

2024년, 제주도가 ‘아픈 지표’를 마주한 해다. 처음으로 ‘자살률 전국 1위’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20년 넘게 가장 높은 자살률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위험 신호는 계속 감지되고 있다. 제주는 자살률이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의 관심과 대응이 더욱 필요한 때다. 본보는 앞으로 8회에 걸친 기획 ‘제주, 생명존중도시로 나아간다’를 통해 제주지역 자살 문제를 들여다보고 예방을 위한 과제를 짚어본다.



2024년 자살 사망자 243명…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 자살률 2년째 올라 11년 만 최고… 첫 ‘전국 1위’ 오명 남성·80세 이상 자살률 높아… 증가폭은 40대가 가장 커

상대적인 박탈감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사회적 상황에 따라 추정할 뿐이고 현 통계로 (자살률 증가 원인)을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과 비교하면 제주의 상황은 더 두드러진다. 지역 간 연령구조 차이를 보정한 제주의 인구 10만명당 연령표준화 자살률은 2024년 32.4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기 때문이다. 제주가 ‘자살률 전국 1위’를 기록한 건 2024년이 처음이다. 전국 평균 (24.6명)을 웃돌았고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강원 (29.1명)과는 3.3명, 가장 낮은 서울 (20.0명)과는 12.4명 차이가 났다.

제주의 연령표준화 자살률은 2021년 21.7명에서 2022년 23.5명, 2023년 27.3명, 2024년 32.4명으로 2021년 이후 증가 추세다. 순위만 놓고 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2위에 머물렀던 제주는 2021

년엔 14위까지 개선되기도 했다. 당시 제주는 “전국적으로 자살자가 증가한 가운데 정신 고위험군 발굴 등 자살예방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자살률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2022년과 2023년에 다시 4위로 올라섰고 2024년엔 전국 1위라는 악화된 지표를 받았다. ▶성별·연령·지역마다 다른 신호=제주의 위험 신호는 성별, 연령별,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2024년 성별 자살률은 남성이 여성보다 3.2배 높았다. 남성은 2023년 45.3명에서 2024년 55.3명으로 10명 늘어난 반면 여성은 15.5명에서 17.3명으로 1.8명 올랐다.

연령별로 보면 80세 이상이 64.6명으로 가장 높고 40대 (57.4명)가 뒤를 이었다. 증가폭은 40대가 전년보다 24.4명 늘어 가장 컸다. 이어 80세 이상 (20.0명), 70대 (11.5명), 20대 (7.2명), 50대

(1.4명) 순이었다. 반면 10대 (-1.4명)와 30대 (-2.1명), 60대 (-4.8명)는 줄어들었다.

지역별로는 서귀포시 (40.7명)가 제주시 (34.7명)보다 자살률이 1.2배 높았다. 서귀포시는 2023년 28.9명에서 40.7명으로 11.8명 증가했는데, 제주시는 2023년 31.0명에서 2024년 34.7명으로 3.7명 늘었다.

위험 신호는 여전하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자살 사망자 수는 218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역대 최고치인 2024년 확정치보다 25명 감소했으나 여전히 200명을 웃돌았다. 제주가 마주한 ‘아픈 지표’를 들여다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별취재팀=박소정·양유리·강희만기자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렌(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가족 한 자리에”… 교육가족한마음대회

19일 서귀포고 체육관

제주 교육가족이 함께하는 ‘2026 제주도 교육가족한마음대회’가 열린다. 오는 19일 서귀포고등학교 천지학생체육관에서다.

제주도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가 주최·주관하고 제주도교육청이 후원하는 이 행사는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소통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도내 학교운영위원을 비롯해 학부모, 교직원 등이 참여한다.

이번 행사는 고의숙 제주도교육

감 취임 이후 교육가족이 모이는 첫 자리다. 그런 만큼 새 교육지표인 ‘모두가 주인공, 함께 성장하는 제주교육’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도교육청은 기대하고 있다.

노승남 제주도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은 “교육은 학교만의 힘으로 이뤄질 수 없으며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한다”며 “교육가족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응원하며 제주교육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지은기자

‘자기주도학습센터’ 서귀포에도 문 연다

제주도교육청 지난달 교육부 공모 사업 선정

10월까지 2곳 추가 개소… 도내 총 3곳 운영

제주지역 학생들의 스스로 학습을 지원할 ‘자기주도학습센터’가 제주시에 이어 서귀포에도 문을 연다.

15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자기주도학습센터 2곳이 서귀포 지역에 새롭게 들어선다. 장소는 서귀포시 동흥동에 있는 제주국제교육원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과 남주고등학교다. 앞서 도교육청이 지난 6월 교육부 공모에 선정되면서 오는 10월 개소를 목표하고 있다. 올해 3월 운영에 들어간 제주지역 자기주도학습센터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 이하 제주 센터)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모두 3곳으로 늘어난다.

새로 개설되는 자기주도학습센터 정원은 1곳당 30명이다. 서귀포 외국문화학습관 센터는 서귀포 지역 거점형 센터로 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단, 남주고에 조성되는 센터는 해당 학교 학생에 한해 운영을 시작한다. 남주고의 경우 학교 측이 공모 사업에 참여 의지를 보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교육부 공모 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기주도학습센터는 ‘공공관리형 스터디 카페’다. 공교육 안에서 체계적인 학습을 지원해 사교육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센터는 온라인 학습이 가능한 공간과 자율학습실, 상담실, 휴게실 등으로 꾸며진다. 이곳에서 학생들은 EBS(한국교육방송공사) 콘텐츠를

츠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학습 진단과 처방을 제공받는다. 전문 학습 상담자를 통한 학습 계획 수립, 학습 관리 등도 지원된다.

15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최은희 도교육청 행정부교육감은 “(자기주도학습센터 운영 결과) 중위권 학생들의 학습태도를 키우거나 성적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판단 아래 하반기에 자기주도학습센터 2개소를 더 개소한다”며 사교육비 경감 효과를 기대하기도 했다.

하지만 먼저 문을 연 제주 센터가 정원을 채우지 못하면서 센터 운영 외에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력을 키울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제주 센터의 정원은 25명이지만, 현재 18명이 학습을 이어가고 있다. 김지은기자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엉 사랑으로



2026 이호레우축제

제주의 바다, 전통과 문화가 만나는 축제

태우도 타보국 태우도 라보고 원담고기도 싱명 원담고기도 잡아서 막지개진 이호레우축제 너무 즐거운 이호레우축제

07.31(금) - 08.02(일)

이호테우해수욕장

이호테우축제위원회

축제 내용

I 개회식

- 태우 진수식 및 길트기
- 원드서핑 시연
- 식전 축하 한마당
- 개회식
- 식후 축하 한마당
- 해녀 햇불 퍼레이드 · 열차잡이 재현
- 불꽃놀이

I 주제 프로그램

- 열차잡이 재현
- 원담고기잡이

I 체험 프로그램

- 태우노젓기 체험
- 모형 태우 만들기 체험
- 해리 어리의 사랑(소원) 다리 체험

I 관광객·참여자 한마당

- 고리 던지기
- 신발 과녁 맞히기
- 참여자 족제 게임

I 야간 공연 콘서트

- 문화 예술 공연

I 참여 프로그램

- 이호테우축제 홍보관 운영
- 이호테우축제 사진 공모전 개최
- 바나나 보트
- 전통음식 기름떡 만들기 (부녀회)
- 다양한 체험부스 운영
- 북강스

축제 세부일정

2026. 7. 31. 금

시간	주요내용
17:00~17:30	장예인과 함께하는 특별 점예 공연
18:00~18:40	태우 진수식 및 길트기
18:40~19:00	원드서핑 및 요트시연
19:00~20:00	식전 축하 한마당
20:00~20:30	개회식
20:30~22:00	식후 축하 한마당, 해녀햇불퍼레이드 및 열차잡이 재현, 불꽃놀이

2026. 08. 01. 토

시간	주요내용
10:00~12:00	이호동 탐방길 걷기
11:00~14:00	태우노젓기 대회
13:00~15:00	모형 태우 만들기 체험
16:30~17:30	원담고기잡이 체험
19:00~20:00	참여 프로그램
20:00~22:00	야간 콘서트 (문화예술 공연)

2026. 08. 02. 일

시간	주요내용
11:00~14:00	태우노젓기 대회
11:00~17:00	태우노젓기 체험
13:00~15:00	모형 태우 만들기 체험
17:00~18:00	원담고기잡이 체험
19:00~20:00	참여 프로그램
20:00~22:00	야간 콘서트 (문화예술 공연)

※ 세부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제주이호테우축제 전국사진촬영대회

작품내용 2026 제주이호테우축제 행사 및 이호동의 사계, 행사장 주변 사진 (※ 행사 프로그램 참고)

출품방법 이메일접수 jipask702@gmail.com
성명, 작품명,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기재된 출품표 첨부
출품표는 사형제주도지회 홈페이지(www.jejuipask.com) -자료실에서 다운

심사일표 2026. 9. 3.(목) 사형제주도지회 홈페이지(www.jejuipask.com)
문의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도지회(064-702-7117)
시상내역 금상, 은상, 동상, 입선 (각 입상작에 대해서는 상장과 상금을 드립니다.)
접수기간 2026. 8. 3.(월) ~ 8. 31.(일) **심사일표** 2026. 9. 2.(수)
시상일표 수상자에게 개별통지

원담고기잡이

8월 1일 (토) 16:30~17:30
8월 2일 (일) 17:00~18:00
참가비: 청소년~1만5천원, 일반~2만원 (T지급, 접은 고기는 바로 회로 드실 수 있습니다.)
※ 행사시작 1시간전부터 현장접수 받습니다.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호테우해변 야간개장

2026. 7. 15.(수) ~ 8. 15.(토) 21시 까지

이호테우축제위원회 (064) 742-2501

제주특별자치도지방법보조금지원축제입니다.